

우리시대 대표 민중예술가들이 창조한 '오월의 미학'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오월의 미학 2: 서술에 새겨진 평화

장경화 지음

그는 대학시절부터 '노동요'를 주제로 작업했다. 농부들의 삶과 애환을 흥으로 풀어 냈던 민중노래에 주눅했다. 그러나 80년 광주 오월을 거치며 예술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술과 사회는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그는 예술은 역사와 시대 앞에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리얼리즘에 전착했다.

바로 화가 송창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80년대와 90년대 "야생적인 예술방식의 창의력"으로 자기만의 독창적인 작품활동을 펼쳤다. 그의 예술적 화두는 분단 70년과 구한말 제국주의 역사였다.

장경화 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이 쓴 '오월의 미학 2: 서술에 새겨진 평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1992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임용돼 제1회, 제2회 광주비엔날레에서 근무했던 저자는 조선시대 미대 초빙교수를 비롯해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번 책은 전자 '오월의 미학 1: 뜨거운 가슴이 여는 새벽'이 나온 지 10년 만에 출간됐다. 1권이 민중미술 탄생과 발전을 서술했다면 2권은 23인의 예술세계를 모티브로 일반인들이 민중미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집합이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저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작가를 선정했다. 하나는 5월 정신의 최종 종착점의 가치가 '평화'라는 점에 주목해 '오월의 미학'을 확장시켜 해석했다. 또 하나는 이전의 책에서 누락됐던, 민중미술을 열어가게 하는 젊은 작가도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1장 '역사의 새벽이 부르는 기운'에는 모두 5명의 작가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송창 외에도 '거인의 땅에서 역사의 우물을 건넌' 김재홍, '43인의 칼로 새긴 역사의 광기'



이강하 작 '영산강과 어머니'

박경훈, '5월의 책무감에서 출발한 리얼리즘 바다' 조정태, '강화의 춤추는 꽃, 분단에 새기다' 박진화 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들 작가들은 만연한 모순의 반복과 불공정의 악순환의 뿌리를 불의한 역사에서 찾았다.

2장 '하늘이 품은 대지의 바람'은 하늘과 대지의 바람결에 민감하게 시대와 역사를 읽어갔던 작가들을 소개한다. "때로는 은유적으로, 때로는 서정적으로, 상징을 담아 내면서 시대를 증언"했던 예술가들은 '시대의 포정찬'을 마다하지 않았다. '일그러진 초상이 빛어낸 생명' 안창홍, '불안한 X세대 양식을 지배하다' 신호훈, '서사적 기법으로 시대의 리얼리티를 담다' 방정아, '이름 모를 바람에 남겨진 생명의 흔적' 이명복, '온고지신이 쌓은 민중의 바벨탑' 강용면의 예술은 고난의 시대 거센 비바람으로 대지에 생명을 담아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의 근대 역사는 압축성장으로 대변된다. 군사문화와 국가폭력이 사회를 지배하고



하성흡 작 '부활-역사속에 살아 오다'

민중은 자본의 노예가 되는 대가를 치렀다. 3장에서 소개되는 '서술에 새겨진 평화의 여백'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도사린 폭력과 공포를 주시하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한희원은 어두운 주제를 고독과 슬픔의 서정에 담아냈다. 군에 입대하기 전 '가난한 사람들' (1978)을 발표했는데 당시 호수를 가늠할 수 없는 1500정도 크기였다. 이후 그는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등 진보미술인단체에서 활동했다. 저자는 그를 가리켜 "타고난 고독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슬픔의 상징성이 되어 시대와 이념을 뛰어넘는 '자유'의 예술로 새겨지고 있다"고 평한다.

이밖에 '거칠고 자유분방한 농부의 황토바람' 박문준, '5월은 이름 없는 바람에 생명으로 핀다' 임남진 등의 예술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5장 '출렁이는 5월 갈땀빛 능선'은 다시 새벽을 일으키기 위한 예술을 민중의 이름으로 펼쳐내는 화가들이 소개된다. '5월 시민군이 지켜낸 남도의 땅과 생명의 빛'에 천착한 이강하를 비롯해 '연좌제의 5월 시민군이 품은 땅의 역사' 송필용, '서술에 새겨진 5월의 증언들' 하성흡 등은 광주 정신이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으로 확산돼 가는 의미를 주목한다.

특히 저자는 예술을 향한 일관된 삶을 견지했던 황영성에 대해 '광주 정신, 사랑과 생명의 자유로운 미학 여행'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인품에서 우러난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주제이고 그러한 세계관을 확장시켜가는 미학어법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고 덧붙인다.

<21세기북스·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NS 인문학

신동기·신서영 지음

'싱글슈머'라는 단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1인 가구로 살면서 자신의 생활 양식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를 일컫는다. 이 같은 용어는 네이버지식백과나 시사상식사전에 실린 신조어다.

신조어에 대한 반응은 두 방향으로 나뉜다. 국어를 파괴하고 우리말을 오염시킨다는 부정적인 입장과 한편으로 일상에 유행 유 역할을 하고 소통을 매개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전자기 성세대의 관점을 드러내는 반면 후자는 젊은 세대의 생각을 대변한다.

신조어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와 유행, 재미 등을 풀어 엮은 책 'SNS 인문학'은 시간이 흘러도 꽤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되는 유행어와 의미를 담았다. '올림', '오래된 책들의 생각'의 저자 신동기 작가와 영국 워릭 대학교에서 수학한 신서영 씨가 공동 저자다.

책에는 '인어인간', '인싸&아싸', '라떼', '인구력' 등 뜻을 알고 나면 재미있는 신조어가 등장한다. 원래 인어인간은 "사회에서 특정 역할을 맡지 못하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아 있는 인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신조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오래된 표현이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 토피컬프롤레타리아트 등이 19세기부터 마르크스, 헤겔 등에 의해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58년 손창섭의 '인어인간'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인싸&아싸는 슬기로운 친구의 기술을 말한다. 인싸는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아싸는 무리에 못 어울리고 혼자 지내는 이를 의미한다. <M31·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황은덕 소설가의 공감 공부

황은덕 지음

1987년 이한열 열사의 죽음, 그 현장에 있던 한 쪽의 운동화와 2016년 검찰청사로 향하던 최순실의 남긴 한 쪽의 명품 신발. 이 두 사람이 남긴 신발은 각각의 시대와 역사를 대변한다. 한 켤레의 신발에 공명하는 시선에는 시대와 호흡하기 위한 공감의 노력이 담겨 있다.

세월호 비극의 아픔, 촛불집회와 탄핵,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인권운동과 미투,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등... 지난 몇 년 사이에 펼쳐졌던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다. 다양한 사건과 긴박했던 순간들을 읽어내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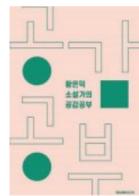
황은덕 소설가가 펴낸 '황은덕 소설가의 공감공부'에는 현 시대를 읽는 작가의 안목과 성찰이 녹아 있다. 독자들에게 공감의 중요성과 공감 능력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을 안내한다.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부에서 저자는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아울러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권력의 타락을 막은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소설 등 작품을 통해서도 시대와 아픔을 공감한다. 우리나라 권력의 역사를 김승 소설가의 'L의 운동화', 이문열 소설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 등 작품을 매개로 재조명한다.

저자는 '진짜 공부'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독서, 여행, 대화, 만남 이 모든 것이 공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편해지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보고 지금 내가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본다.

<해피북미디어·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봄이다, 살아보자

나태주 지음

"저들 속을 내 비록 이방인처럼 스친다 해도 나는 그 자체만을 사랑하며 아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리"(본문 중에서)

'꽃잎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최근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오랫동안 집필해온 산문집 '봄이다, 살아보자'를 펴냈다.

시인을 꿈꾸던 어린 소년에서, 수십 년간 성실히 교단에 서며 아이들과 꽃과 시를 가꾸온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곁의 소박한 시인이 되기까지. 나 시인은 동네 어귀, 들꽃밭, 작은 병상, 어디에서든 시 쓰기를 놓지 않았다. 이번에 출간된 책에는 여든을 바라보는 시인이 삶을 살면서 일상에서 만난 생명력과 회복력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다.

저자는 도입부에서 영국 시인 셸리의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와 프랑스 시인 발레리의 '바람이 분다, 살아보아야겠다'에 기대어 '봄이다, 살아보자'고 말해본다고 밝힌다. 이어지는 1부 '사람이 봄인 날이었습니'에는 '소박한 인연'에 대한 따뜻한 예찬들이, 2부 '마음을 빨래하듯 시를 쓴다'에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시에 대한 소개가 담겼으며 3부 '뜨락에서 배운다'를 통해서 작은 풀꽃들에게서 배운 눈부신 회복력과 지혜를 이야기한다.

시인은 생의 몇몇 지점들을 이미 통과해 온 기성세대에게는 따뜻한 위로, 앞으로 가야 할 길 위에 높은 젊은 세대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전한다.

아울러 코로나 19 팬데믹 3년 차, '그래 살아보는 거다. 우선 1년을 살아보는 거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날들을 살 수 있겠다'라며 응원의 손길을 내민다.

<한겨레출판·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